

“전남광주특별시, 중소기업 중심 성장 전략 담아야”

중기중앙회, 기본계획 중기 의견 반영·재정 활용 촉구 사업체 99.9%·고용 91.8%...지역 경제 중기 의존 구조 인구 감소·소비 위축 겹쳐...성장형 통합 전략 필요 강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특별법 통과로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통합 특별시 개발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중심 성장 전략과 투자 촉진 방안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통합 청사진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지방수도 성장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광주·전남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

립 과정에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과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전남 특화과제의 핵심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한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 촉진 방안’을 전면이 내세웠다.

이 같은 요구는 지역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2022년 기준 광주·전남 전체 사업체 50만459개 가운데 99.9%인 50만5개가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만도 47만9796개

95.9%를 차지한다. 대기업은 454개(0.1%)에 불과하다.

종사자 역시 전체 118만4040명 중 91.8%인 108만6978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실질적 기반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인구 구조를 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 광주·전남 인구는 322만2509명으로 전국의 6.22%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15만8000명으로 매년 감소세(2021년 223만명→2022년 220만8000명→218만8000명)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비중은 광주 27.1%, 전남 21.1%에 머문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광주 17.3%, 전남 26.3%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산업을 떠날수록 인력 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소비와 소득 측면에서도 지역 체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2023년 기준 광주의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평균(2320만2000원)보다 약 10만6000원 낮은 수준이며, 전남(2033만2000원)은 전국 평균 대비 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순위 역시 광주 5위, 전남 17위로 내려앉으며 지역 내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규모도 정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광주·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은 150조원으로 전국의 6.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비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비 위축, 산업 기반 취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

서 중소기업계는 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 유입과 투자 확대, 산업 구조 전환까지 이어지는 ‘성장형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업 연계 인프라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35개 공통과제와 140개 지역특화과제를 제시했다. 리소어링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청년 인력 미스매치 해소,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와 투자 여건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가 수도권과의 경영 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 지원과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는 응답도 각각 40%대 후반에 달한다. 통합특별시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반영된 대목이다.

결국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점에 올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성장 전략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과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간 매출 격차가 6대4 수준까지 벌어져 있고, 비수도권 기업 63%가 이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방수도 성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4월 5일까지 ‘롯데 고메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봄맞이 미식 행사 진행 내달 5일까지 ‘고메 워크’...프로모션 등 다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봄의 정취를 가득 담은 특별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4월 5일까지 ‘롯데 고메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절을 맞춘 신선식품과 더불어 델리, 식당가 등의 요리까지 한 데 모아 다양한 혜택을 더해 방문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다양한 신선식품을 선착순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줄서기 특가 상품전’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26일까지 1차로 한우 등심, 한우 양지, 한우 차돌박이를 비롯해 바나나, 딸기, 망고, 대저도마토, 고구마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혜택가로 만나볼 수 있다.

2차 줄서기 상품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하며 상품 라인업은 2차 행사 전일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신선식품 9900원 균일가 상품과 함께 그로서리, 건강상품군에서도 특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식당가와 델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식당가에서는 오는 26일까지 평일 오후 6시 이후 엘메이로 결제하는 고객 대상 7

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15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할인을 즉시 제공한다.

또 주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5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델리&베이커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권도 롯데백화점 어플을 통해 선착순 증정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식품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수완지구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 ‘키리키리베이커리’에서는 최근 인기 디저트 상품인 ‘버터떡’을 비롯한 다양한 디저트를 제안하는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포르투갈식 에스타르트로 유명한 ‘나파오비까’ 국내의 맥주대회에서 수상한 수제 맥주 전문 브랜드 ‘아트몬스터’, 한우 갈비로 유명한 ‘삼원가든’ 등 다양한 팝업 행사도 오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제모 광주점 식품팀장은 “고물가 시대 합리적이고 부담없는 먹거리를 제안하기 위한 특별한 식품 행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며 “행사 기간 광주점에 방문하셔서 봄 철 미식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기단 현대화...수익성 회복 시동 B737-8 10호기 도입...연료비 16% 절감 효과 등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확대하며 기단 현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차세대 항공기 B737-8 10호기를 도입하며 총 44대의 여객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도입 예정인 7대 가운데 두 번째 기체로, 차세대 항공기 보유 대수는 총 10대로 늘었다.

이번 기단 재편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항공은 2023년부터 B737-8 도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8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령 20년 이상 노후 리스기 2대를 반납하는 등 기단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왔다.

차세대 항공기 확대는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연료 효율이 높은 기종 비중이 늘면서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실제 제주항공은 2025년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5분기 만에 수익성을 회복했다.

특히 지난해 연료유류비는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 특성상 유류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기단 현대화가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제주항공은 올해도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노후기 감축을 병행하며 비용 효율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내실 경영’ 기초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운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병행해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에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법국 T. (062) 670-7090

※ 유선 시연으로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메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건락도**

후원(예정): **나주시청** **전문업법인 나주시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